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692.8	18.3	130,000	4.0	-4.1	-6.7	35.5	90.6	43.4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815.9	21.3	418,500	1.7	-10.4	10.4	9.8	5.6	4.7	0.7	0.6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984.9	6.9	96,500	-2.4	-20.6	-16.5	-154	9.2	8.0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74.0	9.1	169,500	0.9	-16.9	-2.9	0.3	10.8	8.0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463.2	18.4	8,880	0.2	-6.3	-27.8	21.1	56.0	27.8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613.1	5.3	24,500	7.7	13.2	40.8	76.3	10.3	9.3	0.6	0.5	5.6	6.0
현대미포조선	2,140.0	13.3	107,000	5.9	-4.0	13.0	36.0	23.1	16.7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65.9	6.6	3,450	1.5	-10.4	-9.6	4.2	69.4	17.3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465.6	36.5	59,500	3.5	-3.6	12.7	9.4	10.5	10.2	1.4	1.3	14.6	13.3
두산밥캣	3,473.6	27.4	34,650	-1.0	-5.8	3.0	-3.2	12.7	12.0	1.0	0.9	7.4	7.6
현대로템	1,317.5	25.4	15,500	2.6	-10.4	-17.3	-17.3	20.0	13.6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25.4	48.0	23,900	-0.6	-5.9	-6.5	6.2	10.8	9.9	0.9	0.9	8.8	9.0
성광밴드	371.8	15.9	13,000	2.8	4.4	32.9	30.3	1,149.2	46.6	0.8	0.8	0.1	1.8
태광	402.8	16.6	15,200	3.4	5.2	43.3	26.1	90.8	44.3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07.6	9.6	15,100	1.0	-6.5	-6.5	-1.6	11.6	9.4	0.5	0.5	4.3	5.2
두산인프라코어	2,025.2	13.8	9,730	-1.2	-14.6	9.2	12.0	8.6	7.6	1.0	0.9	11.5	11.5
두산엔진	279.4	3.9	4,020	0.6	-5.4	-20.2	9.1	-111.4	88.3	0.5	0.5	-0.5	0.6
한국항공우주산업	5,010.2	17.5	51,400	2.9	-7.2	-0.8	8.3	34.6	24.8	3.8	3.4	11.2	14.1
한화테크윈	1,486.0	13.9	28,250	0.4	-17.2	-21.9	-20.5	17.7	12.8	0.6	0.6	3.6	4.7
LIG넥스원	1,082.4	10.5	49,200	-0.4	-16.5	-17.3	-17.7	19.5	13.8	1.7	1.5	8.7	11.4
태웅	441.2	3.0	22,050	2.6	-9.6	23.2	14.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52.8	4.8	9,370	5.5	9.6	93.0	85.5	-390.4	55.4	27	27	-0.7	5.0
한국기본	292.3	16.4	6,650	0.0	-9.3	18.4	24.1	49.6	34.4	0.9	0.9	1.8	2.6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6p, 중고선가 지수 96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6p, 중고선가 지수는 96p로 전주와 동일함. 일본 Sasaki 조선소는 5천CBM급 LPG선 2척을 Kumai Senpaku에서 수주함. 현 시점까지 올해 총 117건의 신조선 계약이 있었고, 벌크선 34건, 텁커 16건, 컨테이너선 30건, LPG선 10건, LNG선 7건 등으로 구성됨. (Clarksons)

가삼현 대표 "현대중공업, 올 1분기만 60억달러 수주"

현대중공업 그룹선박해양영업부문 가삼현 대표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실적(100억달러)의 절반을 뛰어넘는 60억달러의 선박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올해는 전세계 조선업체의 수주량이 3년만에 인도량을 넘어서 전망임. 다만 유가, 환율, 원자재 가격이 모두 불리하게 움직이는 점에 대해 우려함. (한국경제)

Transocean sees better times ahead for rig use

시추업체 Transocean은 2017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시추장치에 대한 입찰활동 증가를 근거로 향후 시추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함. 특히 멕시코만, 브라질, 양尴라 지역에서 시추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반면, 심해 시추시장은 2019년까지 시장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함. (Upstream)

IMO "환경규제 강화" 엠포...선사들 '선대교체' 빨라지나

국제석유주간 커플런스에서 IMO 에너지국장 Edmund Hughes는 선박 연료유로 고유한 유리를 사용할 경우 스크러버를 설치해야만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또 IMO 위원회는 오는 4월 회의에서 스크러버 설치 등 환경 규제에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을 둔다고 언급함. (EBN)

Shell looks to a future in the deep waters

오일메이저 Shell은 지난 3년간 심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에서 45% 수준의 비용절감을 이뤘고, 향후 몇 년간 심해에 집중할 계획임. 현재 하루 75만배럴을 심해에서 생산하고 있고, 예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10년 뒤 90만배럴로 증가할 전망임. 향후 Shell은 유가상승에도 비용을 계속 절감할 예정임. (Upstream)

Ocean Rig eyes upturn

시추업체 Ocean Rig 관계자는 2018년 업황은 여전히 어려우나, 시추장비에 대한 Enquiry가 증가하는 점을 근거로 업황 바닥을 지났다고 예상함. 또 향후 12~18개월 내에 rig의 가동률을 증가할 전망함.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드릴십 3척 중, 취소된 1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Upstream)

Norway set for investment rebound

노르웨이 통계청은 지난 3년간 감소했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를 올해 203억 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석유회사의 투자계획을 근거로 추정한 수치이며, 전분기 추정치 대비 11% 증가함. 유가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됐고, 프로젝트 개발의 BEP가 낮아져 투자가 증가할 전망임. (Upstream)

두산엔진의 3900억 밥캣 지분, 두산중공업으로

두산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보유 중인 두산밥캣 지분(10.6%)과 기타계열사 지분은 두산중공업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짐. 구체적인 이전 방식은 알리지 않았으나,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신설회사에 지분을 넘긴 뒤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짐. (더밸)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